

26-14(통권 1015호) 2026.07.31

경제주평

- 물가 안정, 이제는 장기전으로
- 2026년 상반기 물가 평가 및 하반기 전망

목 차

■ 물가 안정, 이제는 장기전으로 - 2026년 상반기 물가 평가 및 하반기 전망

Executive Summary	i
1. 개요	1
2. 품목별 물가 동향	2
3. 종합 전망	8
4. 시사점	9

☐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 제 연 구 실 : 노 시 연 연 구 위 원 (2072-6248, syroh@hri.co.kr)

Executive Summary

□ 물가 안정, 이제는 장기전으로

- 2026년 상반기 물가 평가 및 하반기 전망

■ 개 요

2026년 상반기에는 국제유가 급등이 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부각되었으나, 최근 국제유가 하락으로 유가 외 물가 요인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2026년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석유류를 중심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되었다. 하지만 최근 중동 리스크가 다소 완화되며 국제유가가 하락한 가운데 석유류 제외 물가의 상승세는 이어지면서 여타 품목의 물가 흐름에도 주목할 필요성이 확대되었다. 이에 본 보고서는 품목별 물가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물가 향방을 전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품목별 물가 동향

① 농축수산물

2026년 상반기 농축수산물 물가는 둔화세를 보였으나, 하반기에는 계절적 기상 요인에 따른 공급 여건 악화로 물가 상방 압력 확대가 우려된다. 2026년 상반기 농축수산물 물가는 전년동기대비 1.4% 상승하며 2025년 하반기 3.6% 대비 상승세가 둔화되었다. 이는 채소 및 과실을 중심으로 농산물 물가상승률이 하락 전환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한편, 농축수산물 물가는 폭염, 집중호우 등 기상 악화에 따른 공급 차질로 하반기에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경향이 있어 향후 물가 상방 압력 확대 가능성이 있다.

② 공업제품

공업제품 물가의 경우, 석유류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확대되었으며, 향후에도 석유류에 따라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2026년 상반기 공업제품 물가상승률은 2025년 하반기 대비 상승세가 확대된 3.0%(전년동기대비)를 기록,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에 1.00%p 기여하였다. 이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류 물가의 상승세가 크게 확대된 데 주로 기인한다. 향후에도 공업제품 물가는 국제유가에 따라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상반기보다 완화된 점을 고려하면 하반기에는 공업제품 물가가 소폭 둔화될 전망이나, 중동 리스크 재고조 시 상방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③ 전기·가스·수도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안정세를 보였으며, 하반기에도 유사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가스·수도 물가상승률(전년동기대비)은 2025년 하반기 0.7%에서 2026년 상반기 0.2%로 둔화하며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에 0.01%p 기여하였다. 이는 주요 요금이 동결되거나 인상 폭이 최소화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2026년

하반기에도 공공요금 동결 기조가 지속되면서 전기·가스·수도 물가의 상승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가스공사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④ 집세

2026년 상반기 집세 물가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으며, 향후에도 상승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6년 상반기 집세 물가상승률은 2025년 하반기 0.8%보다 높은 1.0%를 기록하였다. 이는 공급 부족, 대출 규제, 실거주 요건 강화 등으로 전세난이 심화하며 전세 물가의 상승세가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편, 종합주택유형 전월세 수급동향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에도 집세 물가의 상승세는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⑤ 공공서비스

공공서비스 물가는 상승세가 확대된 가운데 하반기에는 지난해 한시적 통신 요금 감면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상승세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026년 상반기 공공서비스 물가는 2025년 하반기 대비 상승세가 확대된 전년동기대비 1.5%의 상승률을 기록,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에 0.17%p 기여하였다. 이는 국제항공료, 휴대전화료 등이 큰 폭으로 상승한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유치원납입금 물가상승률은 무상화 확대로 36.8% 하락하며 공공서비스 물가의 상승 압력을 일부 상쇄하였다. 상반기에 작용한 물가 상승 요인이 하반기에도 이어지는 가운데 통신 요금 감면에 따른 기저효과까지 더해지며 공공서비스 물가의 상승세는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통신 3사의 요금제 개편에 따른 요금 인하 효과가 기저효과로 인한 물가 상방 압력을 다소 완화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⑥ 개인서비스

2026년 상반기 상승세가 소폭 확대된 개인서비스 물가는 향후에도 3%대에서 등락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개인서비스 물가상승률(전년동기대비)은 2025년 하반기 3.1%에서 2026년 상반기 3.3%로 소폭 상승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이는 외식 물가의 상승세가 둔화한 가운데 승용차임차료, 단체여행비 등을 중심으로 한 외식제외 물가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가격변동이 경직적인 서비스 물가의 특성상 개인서비스 물가는 하반기에도 3%대 수준에 머무를 전망이나, 인건비 상승에 따른 추가 상방 압력도 상존한다.

■ 종합 전망

2026년 상반기 소비자물가를 품목별로 점검해 본 결과, 하반기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대비 2.5~3.0% 상승할 전망이다. 2026년 하반기 상품 물가는 농축수산물 물가의 상승세가 공업제품 물가의 둔화세를 상회하면서 상반기보다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서비스 물가는 개인서비스 물가의 안정세에도 집세 및 공공서비스 물가의 상승세로 인해 상반기보다 상승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 시나리오 기

준, 2026년 하반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7%를 기록할 전망이다. 상방 시나리오의 경우, 중동 리스크 재고조, 슈퍼 엘니뇨 발생,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 확대, 임금 상승에 따른 비용 전가 등이 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소비자물가는 3.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하방 시나리오에서는 중동 리스크 완화, 농축수산물 공급 여건 안정 지속 등 물가 하방 요인이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상반기와 동일한 2.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6년 품목별 물가상승률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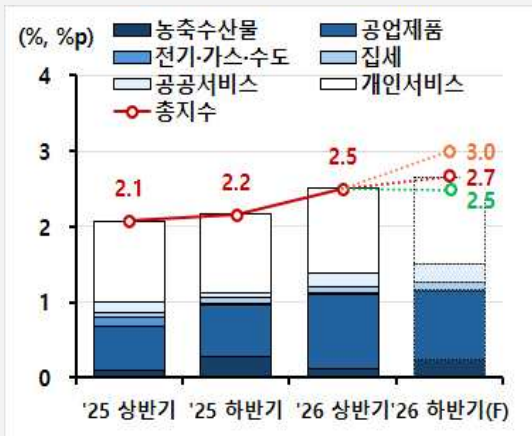
구분		상반기	하반기(F)
상 품	농축수산물	1.4%	▲
	공업제품	3.0%	▼
	전기·가스·수도	0.2%	—
서 비 스	집세	1.0%	▲
	공공서비스	1.5%	▲
	개인서비스	3.3%	—

자료 : 국가데이터처, 현대경제연구원.

주1) 전년동기대비 기준.

2) ▲(▼)는 2026년 상반기 대비 상승(하락),
—는 2026년 상반기와 유사함을 의미.

< 2026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 >



자료 : 국가데이터처, 현대경제연구원.

주 : 전년동기대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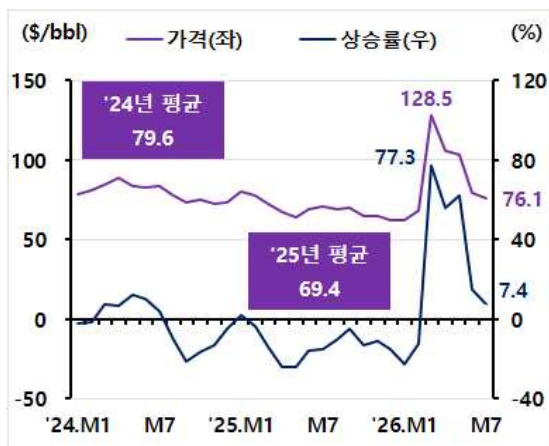
■ 시사점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반적인 물가 상승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주요 품목별 물가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첫째, 가계의 필수 소비 지출과 직결되는 농축수산물, 집세 등 주요 품목의 물가 상승 압력 확대 가능성에 유의하여 관리해야 한다. 둘째, 국제유가 재상승 가능성에 대비하여 단기적 충격 완화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중장기적 대응 역량 확보에도 힘써야 한다. 셋째, 고물가에 따른 민간 경제주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1. 개요

- 2026년 상반기에는 국제유가 급등이 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부각되었으나, 최근 국제유가 하락으로 유가 외 물가 요인에 대한 검토 필요성 증대
 - 2026년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석유류를 중심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
 - 2025년 배럴당 60~80달러 수준이었던 두바이유 가격은 미국-이란 전쟁 발발(2.28.) 이후 급등하며 2026년 3월 평균 배럴당 128.5달러를 기록
 -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도 3월부터 상승세가 확대되었으며, 6월에는 2023년 12월 이후 최고치인 3.2%까지 상승
 - 최근 중동 리스크가 다소 완화되며 국제유가가 하락한 가운데 석유류 제외 물가의 상승세는 이어지면서 여타 품목의 물가 흐름에도 주목할 필요성 확대
 - 두바이유 가격은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6.17.) 등으로 중동 리스크가 다소 완화되며 7월 들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 근접
 - 한편, 석유류를 제외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월부터 상승세가 확대되면서 여타 품목의 물가 흐름에 따라 전체 물가의 향방이 좌우될 것으로 판단
- 이에 본 보고서는 품목별 물가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물가 향방을 전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두바이유 평균 가격 및 상승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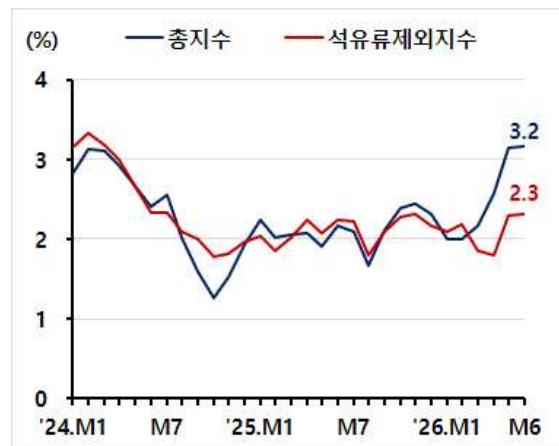


자료 : 페트로넷.

주1) 2026년 7월은 7월 1~28일 평균.

주2)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 소비자물가 및 석유류 제외 물가상승률 >



자료 : 국가데이터처, 현대경제연구원.

주 : 전년동기대비 기준.

2. 품목별 물가 동향

① 농축수산물

- 2026년 상반기 농축수산물 물가는 둔화세를 보였으나, 하반기에는 계절적 기상 요인에 따른 공급 여건 악화로 물가 상방 압력 확대 우려
 - 2026년 상반기 농축수산물 물가는 전년동기대비 1.4% 상승하며 2025년 하반기(3.6%) 대비 상승세가 둔화
 - 2026년 상반기 농축수산물 물가상승률은 1.4%로 둔화하였으며,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기여도는 0.11%p인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채소 및 과실을 중심으로 농산물 물가상승률이 하락 전환한 영향
 - 2026년 상반기 축산물 및 수산물의 물가상승률은 2025년 하반기와 유사한 흐름을 보인 반면, 농산물 물가상승률은 $\Delta 1.9\%$ 를 기록하며 하락 전환
 - 세부적으로는 작황 호조에 따른 양파, 마늘 등 채소와 귤 등 과실의 공급량 증가가 농산물 물가 하락으로 이어짐
 - 한편, 농축수산물 물가는 폭염, 집중호우 등 기상 악화에 따른 공급 차질로 하반기에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경향이 있어 향후 물가 상방 압력 확대 가능성
 - 2000~2025년 상·하반기 농축수산물 평균 물가상승률은 각각 3.98%, 4.03%로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높은 수준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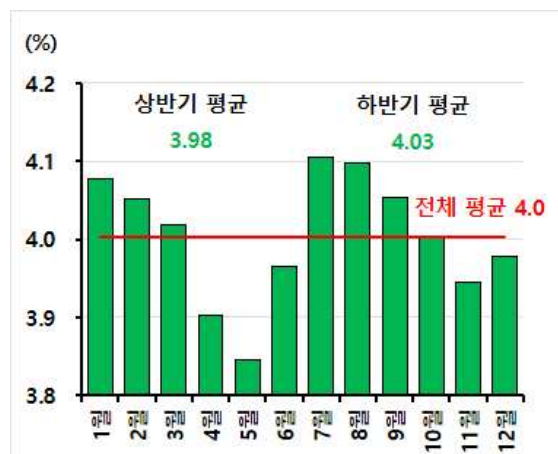
< 품목별 농축수산물 물가상승률 및 기여도 >

(단위: %, %p)

구분	'25년 하반기	'26년 상반기
농축수산물	3.6 (0.28)	1.4 (0.11)
농산물	1.7 (0.07)	$\Delta 1.9$ ($\Delta 0.08$)
축산물	5.3 (0.13)	5.6 (0.14)
수산물	6.7 (0.07)	4.5 (0.05)

자료 : 국가데이터처, 현대경제연구원.
 주1) 전년동기대비 기준.
 2) ()는 기여도.

< 농축수산물 평균 물가상승률 >



자료 : 국가데이터처, 현대경제연구원.
 주1) 2000~2025년 월별 평균.
 2) 전년동기대비 기준.

② 공업제품

○ 공업제품 물가의 경우, 석유류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확대되었으며, 향후에도 석유류에 따라 향방이 결정될 전망

- 2026년 상반기 공업제품 물가상승률은 2025년 하반기(2.1%) 대비 상승세가 확대된 3.0%(전년동기대비)를 기록,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에 1.00%p 기여
- 이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류 물가의 상승세가 크게 확대된 데 주로 기인
 -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유류세 인하 등의 정책 대응으로 국제유가의 상승 압력을 일부 완화하였음에도 2026년 상반기 석유류 물가는 12.8% 급등
 - 내구재의 경우,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상승세가 휴대전화기, 컴퓨터 등 주요 IT 제품 가격으로 전이되며 2.2% 상승
 - 한편, 가공식품 물가는 세계 식량 가격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인 가운데 수입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등으로 상승세가 1.5%로 둔화
- 향후에도 공업제품 물가는 국제유가에 따라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
 - 올해 원자재 가격은 비에너지(전년대비 2.8%)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에너지(전년대비 23.6%)가 물가 변동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최근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상반기보다 완화된 점을 고려하면 하반기에는 공업제품 물가가 소폭 둔화될 전망이나, 중동 리스크 재고조 시 상방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

< 품목별 공업제품 물가상승률 및 기여도 >

(단위: %, %p)

구분	'25년 하반기	'26년 상반기
공업제품	2.1 (0.69)	3.0 (1.00)
가공식품	3.6 (0.31)	1.5 (0.13)
내구재	1.2 (0.08)	2.2 (0.15)
석유류	2.8 (0.11)	12.8 (0.50)

자료 : 국가데이터처, 현대경제연구원.
주1) 전년동기대비 기준.
주2) ()는 기여도.

< 원자재 가격 지수 상승률 추이 및 전망 >

(단위: %)

구분	'25년	'26년(F)	'27년(F)
전체	△6.4	15.5	△12.3
에너지	△11.3	23.6	△17.2
비에너지	2.6	2.8	△2.8
농산물	0.6	△5.6	0.6
금속 및 광물	5.2	16.6	△6.5

자료 : World Bank(2026), Commodity Markets Outlook, April 2026.
주 : 전년대비 기준.

③ 전기·가스·수도

○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안정세를 보였으며, 하반기에도 유사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

- 전기·가스·수도 물가상승률(전년동기대비)은 2025년 하반기 0.7%에서 2026년 상반기 0.2%로 둔화하며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에 0.01%p 기여
- 이는 주요 요금의 동결되거나 인상 폭이 최소화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
 - 2026년 상반기 상수도료 및 도시가스 물가상승률은 각각 2.1%, 0.3%로 둔화
 - 전기료의 경우,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인하¹⁾ 효과로 2025년 하반기와 동일한 △0.4%를 기록
- 2026년 하반기에도 공공요금 동결 기조가 지속되면서 전기·가스·수도 물가의 상승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인하에 따른 기저효과에도 정부가 전기·가스요금 등 중앙 공공요금과 상수도료 등 지방 공공요금을 동결 기조하에서 관리할 계획²⁾임에 따라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
 - 다만,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가스공사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

< 품목별 전기·가스·수도 물가상승률 및 기여도 >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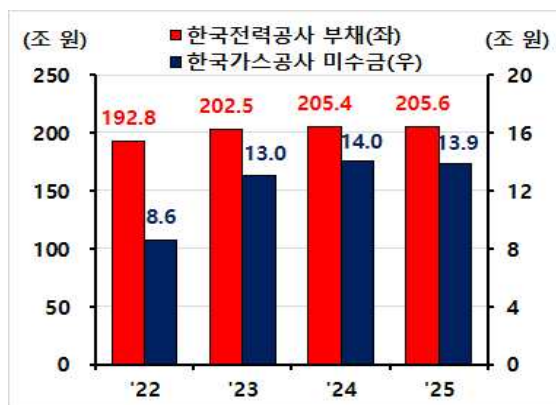
구분	'25년 하반기	'26년 상반기
전기·가스·수도	0.7 (0.03)	0.2 (0.01)
상수도료	3.6 (0.02)	2.1 (0.01)
전기료	△0.4 (△0.01)	△0.4 (△0.01)
도시가스	1.4 (0.02)	0.3 (0.00)

자료 : 국가데이터처, 현대경제연구원.

주1) 전년동기대비 기준.

2) ()는 기여도.

< 한국전력공사 부채 및 한국가스공사 누적 미수금 >



자료 :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주 :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은 민수용 기준.

1) 전력산업기반기금이란 전력산업의 발전 및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으로 2025년 7월부터 요율이 3.2%에서 2.7%로 인하.

2) 관계부처합동(2026.7.14.),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④ 집세

○ 2026년 상반기 집세 물가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으며, 향후에도 상승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임

- 2026년 상반기 집세 물가상승률은 2025년 하반기 0.8%보다 높은 1.0%를 기록
 - 집세 물가상승률은 2026년 상반기 전년동기대비 1.0%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에 0.09%p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공급 부족, 대출 규제, 실거주 요건 강화 등으로 전세난이 심화하며 전세 물가의 상승세가 확대된 영향
 - 2026년 상반기 전세 물가는 0.8% 상승하며 2025년 하반기(0.6%)보다 상승 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월세 물가상승률은 1.1%로 2025년 하반기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
- 한편, 종합주택유형 전월세 수급동향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에도 집세 물가의 상승세는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
 - 2026년 6월 기준 종합주택유형 전월세 수급동향은 각각 104.5p, 104.8p로 약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수급 악화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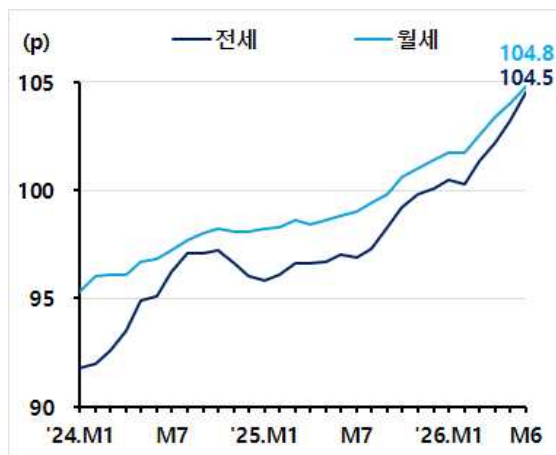
< 품목별 집세 물가상승률 및 기여도 >

(단위: %, %p)

구분	'25년 하반기	'26년 상반기
집세	0.8 (0.08)	1.0 (0.09)
전세	0.6 (0.03)	0.8 (0.04)
월세	1.1 (0.05)	1.1 (0.05)

자료 : 국가데이터처, 현대경제연구원.
 주1) 전년동기대비 기준.
 2) ()는 기여도.

< 종합주택유형 전월세 수급동향 >



자료 : 한국부동산원.
 주1) 0~200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공급 많음,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 많음을 의미.
 2) 전국 기준.

⑤ 공공서비스

○ 공공서비스 물가는 상승세가 확대된 가운데 하반기에는 지난해 한시적 통신 요금 감면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상승세가 더욱 확대될 전망

- 2026년 상반기 공공서비스 물가는 2025년 하반기(0.5%) 대비 상승세가 확대된 전년동기대비 1.5%의 상승률을 기록,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에 0.17%p 기여
- 이는 국제항공료, 휴대전화료 등이 큰 폭으로 상승한 영향인 것으로 분석
 - 2026년 상반기 국제항공료 물가상승률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할증료 인상으로 13.9%까지 급등하였으며, 휴대전화료는 2025년 8월 통신 요금 50% 감면의 영향이 해소되면서 0.1%로 상승 전환
 - 또한, 1월부터 적용된 의료수가 인상 영향으로 외래진료비, 입원진료비 등도 각각 2.0% 상승
 - 반면, 유치원납입금 물가상승률은 무상화 확대로 36.8% 하락하며 공공서비스 물가의 상승 압력을 일부 상쇄
- 상반기에 작용한 물가 상승 요인이 하반기에도 이어지는 가운데 통신 요금 감면에 따른 기저효과까지 더해지며 공공서비스 물가의 상승세는 확대될 전망
 - 다만, 통신 3사의 요금제 개편에 따른 요금 인하 효과가 기저효과로 인한 물가 상방 압력을 다소 완화할 가능성

< 품목별 공공서비스 물가상승률 및 기여도 >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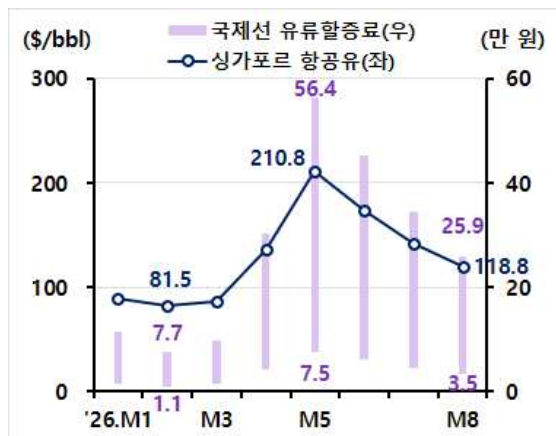
구분	'25년 하반기	'26년 상반기
공공서비스	0.5 (0.06)	1.5 (0.17)
국제항공료	1.0 (0.00)	13.9 (0.04)
휴대전화료	△3.4 (△0.10)	0.1 (0.00)
유치원납입금	△14.3 (△0.02)	△36.8 (△0.05)

자료 : 국가데이터처, 현대경제연구원.

주1) 전년동기대비 기준.

2) ()는 기여도.

<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 및 국제선 유류할증료 >



자료 : 블룸버그, 대한항공.

주1) 싱가포르 항공유는 전전월 16일부터 전월 15일까지의 평균.

2) 유류할증료는 한국 출발 편도 기준.

⑥ 개인서비스

○ 2026년 상반기 상승세가 소폭 확대된 개인서비스 물가는 향후에도 3%대에서 등락을 지속할 가능성이 큼

- 개인서비스 물가상승률(전년동기대비)은 2025년 하반기 3.1%에서 2026년 상반기 3.3%로 소폭 상승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임
 - 2026년 상반기 개인서비스 물가는 3.3% 상승하였으며,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기여도는 1.12%p인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외식 물가의 상승세가 둔화한 가운데 승용차임차료, 단체여행비 등을 중심으로 한 외식제외 물가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
 - 2026년 상반기 외식 물가상승률은 2.7%로 2025년 하반기(3.1%) 대비 둔화
 - 반면, 외식제외 물가상승률은 여행 수요 확대, 유류할증료 인상 등으로 인해 승용차임차료, 국내·해외단체여행비 등이 상승하며 3.7%로 확대
- 가격변동이 경직적인 서비스 물가의 특성상 개인서비스 물가는 하반기에도 3%대 수준에 머무를 전망이나, 인건비 상승에 따른 추가 상방 압력 상존
 - 특히, 2027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023년 이후 가장 높은 3.7%로 확정됨에 따라 선제적 가격 조정 등을 통한 인건비 상승분의 가격 전가 가능성 상존

< 품목별 개인서비스 물가상승률 > < 평균 명목임금 및 최저임금 상승률 >
및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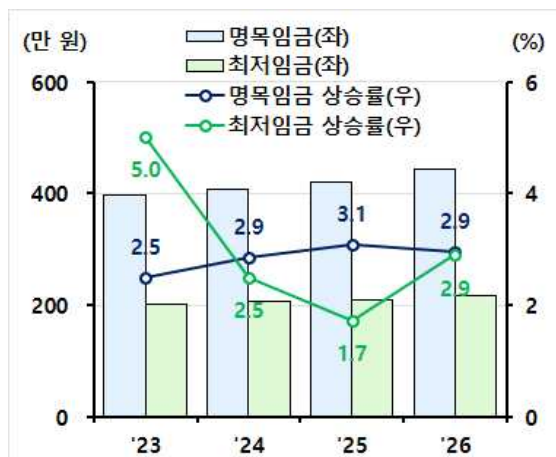
(단위: %, %p)

구분	'25년 하반기	'26년 상반기
개인서비스	3.1 (1.05)	3.3 (1.12)
외식	3.1 (0.44)	2.7 (0.39)
외식제외	3.1 (0.60)	3.7 (0.73)

자료 : 국가데이터처, 현대경제연구원.

주1) 전년동기대비 기준.

2) ()는 기여도.



자료 : 국가데이터처, 최저임금위원회.

주1) 2026년 명목임금은 2026년 1~4월 평균.

2)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3. 종합 전망

- 2026년 상반기 소비자물가를 품목별로 점검해 본 결과, 하반기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2.5~3.0% 상승할 전망
 - 2026년 하반기 상품 물가는 농축수산물 물가의 상승세가 공업제품 물가의 둔화세를 상회하면서 상반기보다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큼
 - 농축수산물은 상반기 1.4%보다 높은 물가상승률을, 공업제품은 상반기 3.0%보다 소폭 낮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 2026년 하반기 서비스 물가는 개인서비스 물가의 안정세에도 집세 및 공공서비스 물가의 상승세로 인해 상반기보다 상승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집세 및 공공서비스의 물가상승률은 상반기(각각 1.0%, 1.5%)보다 높을 전망
 - 기본 시나리오 기준, 2026년 하반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7%를 기록할 전망
 - (상방 시나리오) 중동 리스크 재고조, 슈퍼 엘니뇨 발생,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 확대, 임금 상승에 따른 비용 전가 등이 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경우, 소비자물가는 3.0%까지 상승할 전망
 - (하방 시나리오) 중동 리스크 완화, 농축수산물 공급 여건 안정 지속 등 물가 하방 요인이 확대될 경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상반기와 동일한 2.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2026년 품목별 물가상승률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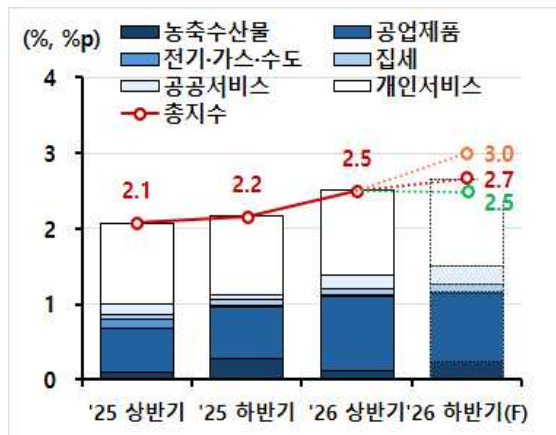
구분		상반기	하반기(F)
상품	농축수산물	1.4%	▲
	공업제품	3.0%	▼
	전기·가스·수도	0.2%	—
서비스	집세	1.0%	▲
	공공서비스	1.5%	▲
	개인서비스	3.3%	—

자료 : 국가데이터처, 현대경제연구원.

주1) 전년동기대비 기준.

2) ▲(▼)는 2026년 상반기 대비 상승(하락),
—는 2026년 상반기와 유사함을 의미.

< 2026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 >



자료 : 국가데이터처, 현대경제연구원.

주 : 전년동기대비 기준.

4. 시사점

-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반적인 물가 상승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주요 품목별 물가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 노력을 지속해야 함

첫째, 가계의 필수 소비 지출과 직결되는 농축수산물, 집세 등 주요 품목의 물가 상승 압력 확대 가능성에 유의하여 관리해야 한다.

- 최근 유가 발 물가 상승 압력이 다소 완화되면서 하반기에는 유가 외 품목의 가격 흐름이 물가 안정 여부를 좌우하는 주요 변수로 부각될 가능성이 큼
- 이 중 농축수산물은 기상 여건 변화에 따른 수급 불확실성이 큰 만큼 기후 기반 생산 예측 시스템 고도화, 스마트팜(온실, 축사, 양식장 등) 확대 등을 통한 안정적인 공급 기반 확충이 중요
- 집세의 경우, ‘상생 임대인’ 인센티브를 유지 및 강화하여 임대료 안정을 유도하고, 민간 유희 주택 및 미분양 주택을 활용한 장기 임대 공급을 확대하여 전월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할 필요
- 아울러 가격 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상승 요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유통 구조 개선 및 경쟁 촉진을 통해 상품 가격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한편, 서비스 분야의 원가 부담 관리와 과도한 가격 인상 점검을 통해 전반적인 물가 관리 노력을 강화해야 함

둘째, 국제유가 재상승 가능성에 대비하여 단기적 충격 완화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중장기적 대응 역량 확보에도 힘써야 한다.

- 최근 중동 지역 분쟁 재확산 등으로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제유가 변동을 단발성 요인이 아닌 상시적 물가 리스크로 인식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국제유가 변동은 물가 전반으로 파급되는 주요 경로로 작용하는바, 에너지 수급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민간 재고 활용 유도 등 공급 안정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해 공급망 안정성을 제고해야 함
-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공정 혁신, 고효율 설비 도입 지원 등을 통해 석유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대외 충격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근본적으로 완화해야 함

셋째, 고물가에 따른 민간 경제주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 고물가로 인한 가계의 소비 여력 저하와 기업의 경영 부담 확대를 방지하고 내수 회복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민간 경제주체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가계에는 주거·교통·통신 등 필수 지출 지원, 근로소득세 면세 구간 상향 등을 통해 실질소득을 보전하고, 기업에는 저리 운전자금 지원, 세액공제 확대 등을 통해 경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
- 특히, 물가 충격에 취약한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지원을 강화하여 민생 안정 효과를 극대화해야 함
- 한편,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경우,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긴축 기조가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취약 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및 연착륙 지원과 함께 중소기업 대상 정책금융 확대, 대출 만기 연장 등 금융 부담 완화 방안을 병행해야 함 **HRI**

노 시 연 연 구 위 원 (2072-6248, syroh@hri.co.kr)